

'96년 국제석유시황 및 '97년 유가전망



권 오 복

〈한국석유개발공사 석유조사부 대리〉

1. 파란의 '96년 석유시장

큰 년 국제 석유시장은 원유가가 매우 불안정적인 양상을 보이면서 강세행진을 거듭한 폭등과 파란의 강세場으로 기억될 것 같다.

'90년대 초의 걸프사태('90. 8월~'91. 2월) 이후 '95년에 이르기까지 국제 석유시장은 대체로 저유가 수준이 계속되는 가운데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본격적인 「저유가 시대의 도래」로 보는 시각들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96년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금년 3월부터 예상 외의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 유

가는 4월에 이르러 급등, 걸프사태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하였다. 5~6월중 일시 숨고르기 과정을 거친 유가는 7월 들어서면서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계속하였고, 이후 「걸프전 이래 최고 유가」의 기록은 거듭 갱신되었다. 예를 들어 '93~'95년중에 배럴당 14~16달러 수준에 머물던 *Dubai*유는 금년 10월중 22.5달러를 넘어섰고, *Brent*와 *WTI*도 각각 배럴당 24.8, 25.5달러를 넘어섰다. 이같은 예는 걸프사태 때를 제외하고는 근래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며, 가깝게는 전년에 비해 적게는 5달러에서 많게는 8달러 가량이나 높은 수준이다.

금년에는 유가의 일일 변동폭 또한 매우 큰 특징을 보였다. 유가의 일일 변동폭이 0.30\$/B내외의 수준이었던

〈표-1〉 국제 원유가격 추이

(단위 : \$/B)

	1995				연평균	1996			
	1/4	2/4	3/4	4/4		1/4	2/4	3/4	1Q~3Q
Dubai	16.31	16.97	15.34	15.76	16.09	16.52	17.32	18.99	17.61
Brent	16.84	18.03	16.21	16.95	17.01	18.51	19.56	21.09	19.72
WTI	18.38	19.34	17.85	18.03	18.39	19.86	21.75	22.44	21.35

예년과는 달리 1\$/B을 상회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고, 0.60\$/B 정도의 변동폭은 아주 빈번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례적인 유가 강세와 큰 폭의 유가 변동성은 석유수급적 요인보다는 석유수급외적 요인들에 의해 주도된 측면이 있다. 물론 금년 유가 강세의 주요 원인으로 석유수요가 예상보다 증가한 반면 석유공급은 원활히 증가하지 않아서 석유수급이 빠듯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같은 수급상황 못지 않게 석유수급의 완충기능을 하는 석유재고의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가 계속되어 유가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던 것이다. 또한 이라크 석유수출 관련 절차가 지연과 난항을 거듭하다가 중단된 점이나, 이란·사우디·이라크 등 주요 중동 산유국의 정세불안 등과 같은 정치·시장 심리적 요인들로 인해 유가는 매우 불안정적으로 변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2. 금년의 강세 시황과 주요 원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년의 석유시황은 변동폭이 매우 큰 유가 강세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유가 강세의 원인은 크게 ① 석유수급 ② 석유재고 ③ 이라크수출 재개 문제 ④ 중동정세 불안 ⑤ 투기적 선물 거래 동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석유수급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하고 있는 세계석유수

급표에 따르면 금년 1/4분기의 경우 주요 석유소비자인 미국과 유럽 등 북반구 지역을 휩쓴 동절기 한파로 인해 석유수요가 예상외로 급증, 약 160만b/d의 석유재고 방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4분기와 3/4분기에는 평균 150만b/d 내외의 공급과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4/4분기에는 금년내 이라크 석유수출 재개가 없을 경우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여 타이트한 수급균형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금년 전체로는 30만b/d 정도의 공급과잉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특히 2/4분기와 3/4분기의 경우 각각 170만, 140만b/d의 공급과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계속하여 강세를 보이자 시장 일각에서는 IEA 수급표 자체에 대한 의문이 대두되기도 했다. 즉, IEA가 수요는 과소평가한 반면 공급, 특히 非OPEC 공급은 과대평가함으로써, 실제로는 석유수급이 타이트한데도 공급과잉 상황으로 판단케 했다는 주장이며, 금년 후반 들어서는 이러한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어느 정도 인정하여 IEA의 수급통계 오차를 다소 감안한다 하더라도 석유수급적 요인만으로 유가 강세를 설명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며, 후술할 낮은 석유 재고 수준 문제를 비롯, 이라크 석유수출문제 등 수급외적인 정치적·심리적 요인의 영향력도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2) 석유재고

금년은 석유수급 자체보다도 수급의 완충기능을 하는 석유재고 수준이 큰 영향을 미친 한 해였다.

금년의 전반적인 예상의 유가 상승은 '95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유럽·미국 정유업체 중심의 *Just-in-time* 재고 전략으로 인해 석유재고가 예년보다 매우 낮았던 데 힘입은 바 크다.

금년 1/4분기의 예상의 유가 급등의 경우 최소 운영재고 수준만을 유지하려는 정유업체의 *Just-in-time* 재고전략으로 인하여 난방유 재고가 예년보다 낮던중 미국 등 주요 소비지의 동절기 폭한으로 석유수요가 강세를 보인 데 주로 기인했다.

4/4분기에도 주요 소비자의 난방유 재고 수준이 예년보다 훨씬 낮아 수급 불안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 동절기 기온이 예년보다 추울 경우 1/4분기 상황의 재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북반구 석유소비국의 최근 난방유 재고는 전년동기(5억 2,600만배럴)보다 무려 5,300만배럴 낮은 4억 7,300만배럴 수준으로, 정상적인 이들 지역의 난방유 재고 수준(5억2천만~5억5천만배럴)에 못미치고 있다.

(3) 이라크 석유수출 재개의 난항과 중단

금년 유가는 곧 재개가 될듯 될듯하다가도 자연과 난항을 거듭한 이라크 석유수출 재개절차의 진행상황에 따라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을뿐 아니라, 이라크 석유수출 재개 전망이 사실상 낮은 석유재고 유지전략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측면을 고려할

**금년의 석유시황은
변동폭이 매우 큰 유가
강세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유가
강세의 원인은 크게
석유수급, 석유재고,
이라크수출 재개
문제, 중동정세 불안,
투기적 선물거래 동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우 이라크 석유수출 재개문제야말로 금년 석유시장의 주된 돌출변수였다고 생각된다.

금년 9월 중순 수출 개시를 목표로 진행되던 이라크 석유수출 재개절차는 이라크 군이 쿠르드족 지역 공격사태(8. 31일) 발생 직후인 9월 1일 이래 중단된 상태로, 결국 금년 중 수출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년 4/4분기의 석유수급 타이트 유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4) 중동정세 불안 등 정치적 요인

금년 석유시장은 중동정세를 중심으로한 정치적·심리적 요인이 주도

하였다. 특히 이라크 석유수출절차 중단을 초래한 이라크 정부군의 쿠르드족 지역 공격(8. 31일)은 이후 미국의 미사일 공격을 유발하면서 9월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유가 급등의 원인이 되었다.

그밖에 이란제재법을 둘러싼 이란-미국간의 긴장 지속, 사우디 왕정체제 불안 우려, 이스라엘과 아랍권(시리아, 팔레스타인 등)간의 갈등 고조 등 중동 각국의 정세불안이 그 어느때보다도 복합적이면서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요 중동 산유국들과 관련된 긴장·정세불안이 실제적인 석유공급 차질사태로 이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석유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상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유가 상승을 유발한 것이다.

(5) 투기적 선물거래 동향

금년의 유가 강세는 석유 선물시장에서의 투기적 거래동향으로 인해 더욱 상승압력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

났다.

석유선물시장에서 단기 수급 압박에 따른 실물강세를 반영하여 유가 저항선이 차례로 무너지자 가격 차트상의 유가 상승세를 감지한 투기자(speculator)들이 NYMEX 등에서의 순매입 포지션을 증가시킴에 따라 WTI 선물 유가의 급등세를 유발했으며, 이러한 선물시장의 유가 움직임은 다시금 현물유가를 선도했다.

이들 투기자들은 단기적 수익추구를 위해 상품·금융시장을 넘나들며 투기적인 거래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금년중 석유선물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큰 강세장이 계속되자 단기적 수익 획득을 노린 활발한 활동으로 유가의 변동성을 더욱 증폭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활발한 투기적 거래동향과 관련, 실제 석유수급 요인 외에도 시장심리·거래기술적 요인에 따른 큰 폭의 유가변동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세는 '97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3. '97년의 주요 석유시장 변수들

금년이 저물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의 관심은 자연히 '97년의 석유시장 및 유가가 어떤 양상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 쏠리게 마련이다.

과연 금년의 석유시황 및 고유가 상황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인가 혹은 고유가는 금년에 한정된 이례적인 상황이었을뿐 내년에는 금년의 유가 강세 폭이 컸던만큼 하락 폭도 큰 약세시장이 오지는 않을까 하며 이런 저런 추측을 해보게 되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볼 때 '97년 석유시장은 매우 불투명한

**내년 국제석유시장도
금년의 경우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석유수급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것임은
물론이나 정치·심리적
요인의 작용에 의해서도
매우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점이다.**

것으로 보인다. 유가에 영향을 끼칠 시장 변수들도 많을 뿐더러 그 변수들의 향방이 매우 불확실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비교적 명확한 사실이 있다면 내년 국제석유시장도 금년의 경우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석유수급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것임은 물론이나 정치·심리적 요인의 작용에 의해서도 매우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점이다. 이렇듯 수급외적 요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 경우 변동폭이 큰 유가 강세 추세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임은 물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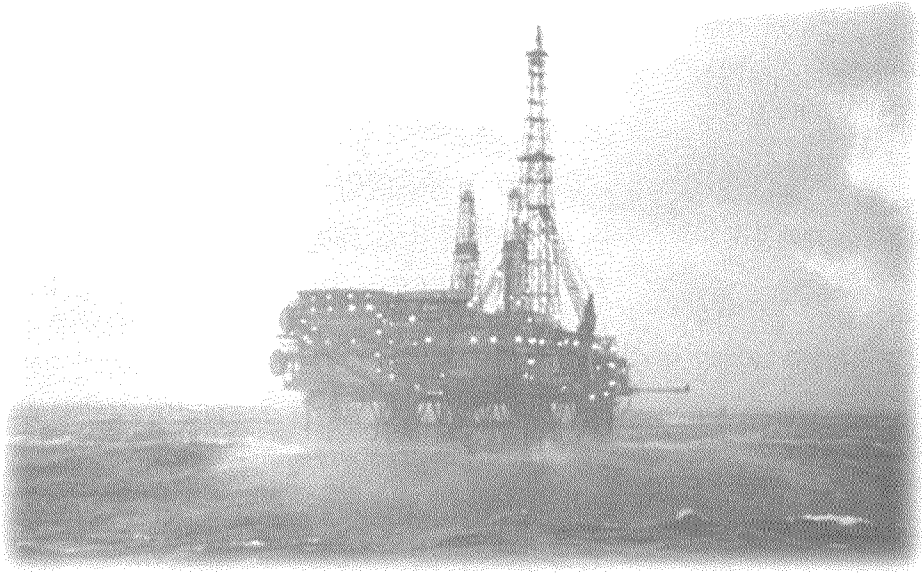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 석유수급에 영향을 미칠 주요 시장변수로 ① 세계경제 전망 ② 석유재고 ③ 이라크 석유수출 재개 ④ OPEC의 생산동향 문제 등을 상정하여 각 변수들이 '97년 석유수급 및 원유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석유수급적 변수 외에 '96년에 이어 중동정세 불안과 같은 정치·심리적 변수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보기로 하겠다.

(1) 세계 경제성장 전망

'97년의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활황세를 보이느냐의 여부는 곧 석유수요가 어느 정도나 증가할 것인가의 여부와 직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일 세계 경기, 그중에서도 석유소비량이 많은 주요 산업국가들의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석유수요는 어느 정도 감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IMF와 WEFA 등 대부분의 경제예측기관들은 '97년 경제성장율이 금년보다 호조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88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



고 있는 기관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OECD 선진국들의 경우 특히 미국의 경기호조 및 유럽의 경기회복 본격화로 2.4%~2.5%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은 경제 안정화 및 구조조정정책의 성공적 추진에 따른 기초 경제여건이 개선되고, 선진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증대 등에 힘입어 6%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구소련·동유럽 등은 폴란드·체코 등의 성장 호주로 금년중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난 후 '97년에는 4%대의 고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 경제호전 전망 등에 힘입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97년 세계 석유수요가 '96년비 2.5%(180만b/d)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세계 에너지연구센터(OGES)등 여타 기관들도 대체로 이 수준의 높은 수요 증가율을 상정하고 있다.

(2) 석유재고

현재의 지속적인 *Backwardation* 시장상황 하에서는 재고의 재보충 유인이 미미하며, '97년 중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라크 석유수출 재개에 따른 추후 유가 하락 전망, 지속적인 정유업체 경영합리화 일환으로서의 재고비용 절감 추세 등을 고려해 볼 때 당분간 *Just-in-time* 재고전략이 유지될 전망이다.

따라서, '97년중에도 낮은 재고수준이 유지됨에 따라 미미한 수급 압박에도 유가가 민감하게 변동, 전반적으로 유가에 강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지므로, 낮은 석유재고 문제는 '97년에도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낮은 석유재고 문제는 금년 4/4분기의 낮은 난방유 재고상황에 따른 수급불안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동시에, '96년말~'97년초의 동절기 기온문제와 맞물릴 경우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난방유 재고가 낮은 상황에서 동절기 기온마저 예년보다 낮아 석유수요가 급증할 경우 금년의 경우와 같이 1/4분기 뿐만 아니라 전분기로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는데, 동절기 기온에 대해서는 예년과 유사 혹은 더 추

올 것이라는 예보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동절기 기온이 어떤 양상을 보일 것인지의 여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장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 이라크 석유수출 재개문제

이라크 석유수출 재개문제는 석유 재고문제와 함께 석유수급·시장심리 양 측면에서 '97년 유가 및 수급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석유수출절차의 연내 재개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97년중에는 수출 재개가 가능한지 혹은 '97년 언저리 이라크 석유의 시장복귀가 가능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96년중 이라크 석유수출 절차를 둘러싼 거둬들인 마찰과 난항에 비추어 불때 미국 및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양측 모두 진정으로 이라크 석유수출 재개를 바라고 있지 않으므로 '97년중 수출 재개도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프랑스 등 여타 안보리 회원국의 수출재개 촉구 압력이 거세져 미국도 강경입장을 고수하기 어려워질 '97년중에는 이라크 석유수출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97년에는 석유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라크 석유수출이 재개된다해도 당초 예상되었던 정도의 큰 폭의 유가하락은 초래하지 않을 것이며, 이라크 수출 물량은 큰 무리 없이 시장에서 흡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OPEC생산 동향

'97년중 OPEC생산동향은 어느 때보다 수급차원에

**'97년에는 석유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라크 석유수출이
재개된다해도 당초 예상
되었던 정도의 큰 폭의
유가하락은 초래하지
않을 것이며, 이라크
수출 물량은 큰 무리
없이 시장에서 흡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이며, 이라크 석유수출 재개 여부와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추이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금년중 계속된 예상 외의 고유가로 인해 회원국의 지속적인 쿼터 초과 생산이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OPEC은 '96년 1/4~3/4분기중 평균 2,573만b/d를 생산, 하반기 생산상한(2,503만3만b/d)을 상회한 생산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생산수준은 석유수출절차 중단으로 인해 이라크가 아직 추가 배정 받은 쿼터 (총120만b/d)를 생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집계된

것으로, 수출 재개시 이라크가 현 생산량 (55만~60만 b/d)보다 60만~70만b/d를 더 생산하고, 이에 대해 OPEC이 별도의 감산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산량은 2,650만~2,660만b/d에 이를 수 있으며, 만일 여타 회원국들이 증산할 경우에는 이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

OPEC으로서는 현 유가강세 추세가 만족스러운 상태이므로 어느 정도의 강세가 지속되는한 별도의 생산 조정 없이 현 수준을 지속할 가능성이 비교적 클 것이며, 이는 이라크 수출 재개 개시시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베네수엘라와 나이지리아 등 일부 만성적인 쿼터위반 회원국을 중심으로 유가 강세의 이익을 향유하려는 목적으로 일부 증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5) 중동 정세

'97년에는 특히 이스라엘-아랍간 갈등과 사우디 정정 불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중 사우디의 경우 경제난, 노쇠한 국왕의 후계문제, 왕정체제에

대한 반발성향마저 보이는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의 강화 등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는데, '97년중 왕정체제의 불안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가 가시화되더라도 할 경우 석유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들 중동 정세 불안요인은 단기간내에 해결될 성질은 아니며, 긴장국면이 지속되거나 증폭될 가능성이 많아 언제라도 돌발적인 석유위기의 단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97년 시장의 가장 중요한 돌출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4. '97년의 석유수급 전망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97년 세계 석유수요는 선진국 경제의 안정성장 및 아시아·남미 등지의 수요 증대에 힘입어 '96년과 같이 전년비 180만b/d 정도의 급증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세계 석유공급중 비OPEC 공급에 대해서는 전망기관별로 전망치에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50만b/d 가량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97년 비OPEC공급이 북해와 라틴아메리카 등지의 증산으로 전년비 180만b/d 증

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나, 대부분 전망기관들이 이 전망치가 너무 높다고 평가하면서 대체로 전년비 150만b/d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본 전망에서도 비OPEC 공급전망에 있어 세계에너지연구센터(OGES)의 전망에 의거, 150만b/d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석유공급중 OPEC 공급은 '97년중 이라크 석유수출 재개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97년중 이라크 수출이 이뤄지지 못하면 현 생산수준(2,590만b/d)이 지속될 것이나, 만일 3/4분기중 이라크 수출이 재개될 경우에는 이라크의 추가생산분(60만~70만b/d)만큼 OPEC 공급량도 늘어나 2,650만~2,660만b/d의 생산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97년 세계 석유수급은 이라크 수출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에는 30만b/d, 3/4분기중 이라크 수출이 재개될 경우에는 60만b/d 정도의 공급과잉이 예상된다.

5. '97년 국제 원유가 전망

'97년 유가 전망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석유전문기관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투명한 변수가 많아 상당히 곤

〈표-2〉 석유수급 전망

(단위 : 100만b/d)

	1996					1997				
	1/4	2/4	3/4	4/4	평균	1/4	2/4	3/4	4/4	평균
OECD 수요	42.1	39.6	40.7	41.9	41.1	42.5	40.3	41.3	42.7	41.7
비OECD 수요	30.8	30.0	30.0	31.8	30.7	32.2	31.4	31.2	33.1	32.0
수요 합계	72.9	69.7	70.6	73.7	71.8	74.7	71.7	72.5	75.7	73.6
비OPEC 공급	43.2	43.2	43.5	45.0	43.7	45.2 (45.3)	45.0 (44.8)	45.0 (45.1)	45.7 (46.9)	45.2 (45.5)
OPEC 원유생산	25.7	25.6	25.9	25.9	25.8	25.9	25.9	26.5*	26.6*	26.2
OPEC NGL 생산	2.5	2.6	2.7	2.8	2.6	2.7	2.8	2.8	2.9	2.8
공급 합계	71.4	71.4	72.1	73.7	72.1	73.8	73.7	74.3	75.2	74.2
수급 균형	-1.6	1.7	1.4	0.0	0.3	-0.9	2.0	1.8	0.5	0.6

〈자료〉 IEA 석유시장보고서('96. 10). OPEC 생산의 *표시는 이라크 수출재개를 상징.

'97년 비OPEC공급은 OGES의 전망치(하단의 괄호수치가 IEA 전망치)임

혹스러워 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 이들 기관중에는 '97년 시황 및 원유가 전망을 함에 있어서 여러 시장 변수를 각각의 기준으로 하여 모두 5~6가지나 되는 케이스의 유가 전망치를 내놓는 경우도 있고, 전망치 범위를 여러 「경우의 수」에 따라 12\$~24\$/B에 놓는 경우조차 있다. '97년 유가는 석유수급상의 공급과잉 상황으로 인해 금년의 강세추세가 한풀 꺾이고 하락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예상이 비교적 많은 편이나, 금년의 강세추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본 전망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여러 시장변수들 간의 상호작용 결과 '97년 유가가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것이나,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경우가 비교적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첫번째 케이스는 '97년 원유가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로, 이 케이스에서 전제로 삼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석유수급측면에서는 세계 석유수요가 대폭 증대될 전망이나, 비OPEC을 중심으로 석유공급도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96년과 유사한 30만 b/d의 공급과잉이 예상된다. 만일 '97년 하반기중 이라크 석유수출이 재개될 경우에는 60만b/d의 공급과잉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일부 OPEC 회원국들이 증산할 경우 이보다 많은 공급과잉도 가능할 것이다.

석유재고측면에서는 '97년에도 낮은 석유재고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96년말~'97년초의 동절기 기온이 평년수준을 보일 경우 그 여파가 '96년 정도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중동정세 불안 및 투기적 요인의 경우 통상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감안되어 오는 요인들로, '97년중 중동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적 충돌 등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한 '96년 정도 이상의 영향

'97년 유가는 석유수급상의 공급과잉 상황으로 인해 금년의 강세추세가 한풀 꺾이고 하락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예상이 비교적 많은 편이나, 금년의 강세추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력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97년 원유가는 '96년과 비슷한 Dubai 기준 \$18/bbl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번째 케이스는 '97년 원유가가 '96년보다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로, 이 케이스에서 전제로 삼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위와 같은 수급상황에도 불구하고, 낮은 석유재고 전략이 지속될 전망이다. 가운데 만일 '96년말~'97년 초중 동절기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석유수요가 예상보다 증대하거나 약간의 공급차질상황만 발생해도 유가는 큰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잔재되어 있는 중동정세 불안요인 및 선물시장에서의 활발한 투기적 거래도 석유수급 못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 유가 변동성을 증폭시켜 유가 상승의 정치적·심리적 지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표-3〉 '97년 국제 원유가 전망(Dubai 기준)

(단위 : \$/B)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균
케이스1	19.50 (16.52)	18.20 (17.32)	16.80 (18.99)	17.50 (20.75*)	18.00 (18.40*)
케이스2	21.00	20.40	18.80	19.80	20.00

〈주〉 ()안은 '96년 유가이며, *는 예상치임.

이러한 낮은 석유재고 유지 전략 및 중동정세 불안, 투기적 요인들은 단기내에 해결될 성질이 아니며, 유가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면서 상승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97년 유가는 '96년보다도 높은 Dubai 기준 \$20/bbl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